



기획예산처, '일 잘하는 공무원'에 확실한 보상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개최

- 민생경제 회복·재정 혁신 등 국정 핵심과제 완수로 실질적 성과 낸 주역들 격려
- '공정한 인사·확실한 보상'으로 성과 중심 공직문화 확산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4월 3일(금), 취임 후 첫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기획예산처 제1회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을 개최하여 정책 현장에서 헌신적인 업무 수행으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실무 주역들에게 포상을 수여했다.

특별성과포상 제도는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사기를 높이고 성과 중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상 대상은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예산처 특별성과포상 심의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다. 심의회는 정책의 파급력과 난이도,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대상 1건을 포함해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총 7건의 수상작을 최종 확정했다.

* 포상금 규모: 대상 1,000만원, 최우수상 500만원, 우수상(2건) 각 300만원, 장려상(3건) 각 200만원

대상(박정민, 정민철)은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라는 초유의 경기 부진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우리 경제에 회복의 모멘텀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을 신속히 편성·집행하여 부진했던 소비와 투자를 적기에 보강한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소득별 맞춤형 지원, 인구 소멸지역 우대, 현금 지원이 아닌 소비쿠폰 방식을 도입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설계로, 민간소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켰으며, 새 정부 첫 성장률('25년 3분기 1.3%)을 견인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김경국, 신경아 외 2인)은 새 정부 핵심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2026년 예산안 편성을 통해 경제회복 흐름을 공고히 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관행적 지출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확보된 재원을 AI 대전환, 신산업 혁신, 지방거점성장 등 고성과 부문에 전략적으로 집중 투자했다.

우수상(김나현, 김진영)은 예산 편성 시기에만 진행되던 지출 효율화를 상시 점검하고,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킴으로써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조정할 수 있도록 재정사업 검토 체계를 혁신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소액 다수의 자금으로 운영 중인 농업자금 이차보전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의무·경직성 지출, 유사·중복사업 등에 대한 지출혁신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우수상(이한결)은 ‘인공지능(AI) 국가 전략자산’이라는 인식 하에서 재정으로 GPU를 직접 구매하는 등 AI 예산 규모를 3배 이상 대폭 확대해 우리나라가 ‘AI 3강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공로로 선정되었다. 정부의 마중물 투자가 삼성, SK 등 민간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1월 한국의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이 세계 3위(AAII 평가기준)로 평가받는 쾌거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 정부 GPU 구매(5만장+@) 이후 삼성전자(5만장), SK 그룹((5만장), 현대차(5만장), 네이버클라우드(6만장) 등 민간의 GPU 투자로 연결

장려상(신대원, 박재홍)은 1994년 도입 이후 30여 년 만에 민간투자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민간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을 해소한 성과로 수상했다. 행정 절차를 최대 5개월 단축하여 사업의 속도감을 높였으며, 국민이 위험부담 없이 수익을 공유할 수 있는 ‘국민참여 공모 인프라펀드’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등 신사업·신유형 민간투자 추진, 인구감소지역에 인센티브 부여 등 지방의 민간투자 활성화, 안전배점의 필수 항목화 등 안전 강화를 통해 민간투자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장려상(문성희)은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시범운영(‘26.2.9.~상반기)을 도입하여 국민의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실명 구매로 건전성을 강화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젊은 층의 유입을 확대하여 복권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복권의 공익성을 홍보하는 방향으로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이기웅, 유근정, 이훈우)은 기획처 출범 직후 전략 수립 및 재정운용 컨트롤타워로서 부처의 미션과 비전, 핵심업무 등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외 메시지를 총괄 관리하여 조직의 조기 안착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장관은 이날 수여식에서 “성과를 낸 공무원이 확실히 인정받는 조직이 결국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와 합리적인 보상을 통해 성과 중심의 일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향후 포상 제도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할 방침이다. 차기 포상부터는 기획처 직원들이 창출한 성과를 국민께 직접 선보이고 평가받는 등 철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김혜영 (044-214-1430)
		담당자	사무관	김소연 (yeoni2266@korea.kr)

